

활동적인 노인의 일상적 활동 참여가 시민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와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

이 주 일* 김 태 웅 김 필 현 이 한 송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한림응용심리 연구소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내 고령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연령과 상관없이 노년기의 활동을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노년기 인구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년기의 활동이론에 기반을 둔 활동적 노년에 관심을 갖고 활동적인 노인의 소공동체활동 참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활동적 노인의 일상적 활동과 소공동체활동 참여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나 선거 참여 등 사회적 시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와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공동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인 700명을 대상으로 일상적 활동 참여, 소공동체 응집성, 소공동체 이기주의, 시민 참여를 측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 참여 간의 관계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 역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사회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점증하고 있는 노년기 인구의 활발한 시민참여가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노인의 일상적인 활동 참여와 소공동체 응집성 및 소공동체 이기주의 성향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시민참여 정책이나 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활동적 노년, 일상적 활동 참여, 시민참여, 소공동체, 소공동체 응집성, 소공동체 이기주의

* 교신저자 : 이주일, 한림대학교, 춘천시 한림대학길 1 심리학과
E-mail : jilee@hallym.ac.kr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7%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현재는 고령층이 ‘고령사회’의 기준치인 14% 이상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층 비율은 2017년의 13.8%에서 2018년에 14.3%로 약 0.5% 정도 증가하였다(통계청, 2018). 서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산업화 이후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약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에 비하면 현재 한국은 산업화 이후 약 50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서구와 비교했을 때 고령화가 2배가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서태열, 임은진, 2013). 국내에서 고령층의 증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지만, 여전히 노년기 삶의 질은 좋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2019)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노인 자살사고 발생 비율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제정 및 실시하고는 있으나, 해당 정책들이 과연 실제로 노인들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실효성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최희경, 2010).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연구자들은 바람직한 노년기의 모습을 활동적 노년(active aging), 성공적 노년(successful aging), 생산적 노년(productive aging) 등의 이론으로 제시했다. 그 중에서 활동적 노년은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서 시작된 것으로, 건강·안전·참여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노년기를 설명한 것이다. 최근까지는 활동적 노년기의 참여활동에 초점을 맞춘,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다른 변인들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이기영, 2017). 활동적 노년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제시하긴 했지만, 대부분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것 자체가 사회적 참여나 적극적인 시민참여 등의 특정 변인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공동체참여 활동과정에서 노인들 자신이 이들 활동에 대해 내적 만족을 발견할 때 비로소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Fernández-Ballesteros, 2008; Fernández-Ballesteros, Robine, Walker, & Kalache, 2013; Walker, 2008). 이러한 관점은 같은 공동체에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노인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 등이 적극적인 시민참여행동에 영향을 기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은 비단 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가의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곧 노인들의 사회적 영향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활동적인 노년기가 우울감, 삶만족도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 노인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적절하게 해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 노인들이 개인적 삶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우선, 노년기 시민참여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노

인들이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넘어서 지역 사회 및 국가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관계에서 개인의 성향인 소공동체 응집성을 매개변인으로 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노년층의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는 지를 제안할 것이다.

둘째로는 소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공동체가 속해 있는 사회적 공익을 위해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자 하는 과정의 반대 측면으로써 소공동체 이기주의를 다룰 것이다. 즉, 소공동체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수준에 따라 시민참여행동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공동체 이기주의를 조절변인으로 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자신이 속한 소공동체나 집단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 간에 일상적 활동 참여수준이 시민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지를 살펴 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법적 연령은 65세 이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법적 연령에 따른 노인만이 아닌 공동체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은퇴 연령이 하향되는 추세에 따라 조기 은퇴를 경험하는 장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잡코리아, 2017), 은퇴를 겪은 장년층은 갑작스럽게 시간적 여유, 사회적 관계망 축소, 사회적 소외감 등을 경험(김은아, 2015; 박현춘, 홍진혁, 최민재, 권영대, 김진석, 노진원, 2014; 정희재, 원영신, 2010)하며 본의 아니게 노년기에 일찍 접어들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로 인해 얻는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고자 소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장년층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은퇴 관련 선행 연구들 또한 은퇴한 장년층을 노인의 범주에 포함하거나 ‘예비 노인’이라는 세대로 지칭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추세이다(김민희, 이주일, 2017; 정희재, 원영신, 2010; 황성식, 김세현, 2019).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조기 은퇴와 은퇴자들이 경험하는 노년기적 현상을 고려하여, 노인의 법적 연령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대상자이더라도, 노인과 유사한 생활 및 상태를 경험하는 은퇴 후 장년층을 예비 노인이라는 단계로 간주하고 연구 표본에 포함하였다.

노년기의 일상적 활동 참여

노년기의 활동적 참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신체활동에 대한 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연구가 되어왔다. 김보현과 안영선(2008)은 여가활동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연구에서,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정유리, 이신숙(2013)은 노년기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 대해, 노후의 여가 생활을 많이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노년기의 여가활동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봉사활동이나 신체활동과 같이 더 세부적인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김석일(2012)은 신체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리적 안녕감을 더 높게 지각하고, 활동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김주현과 한경혜(2001)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노인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들의 비교 연구 결과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사

업에 참여하는 노인들보다 자아효능감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현대의 노인들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김민희, 이주일(2017)의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일상적 활동 참여가 삶 만족, 자아통합감에 주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활동에 대한 의미를 단순한 신체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자기개발이나 종교, 개인적 차원의 봉사활동 등 다양하고 일상적인 사회적 여가활동에 각 개인들이 일상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인의 일상적 활동적 참여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 의욕을 북돋아 주고, 그 결과가 사회 문제해결이나 선거 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형태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민참여

시민참여의 의미에 대해 학자들은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Adler와 Goggin(2005)은 시민참여를 지역사회의 공동적인 선을 달성하고 타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이 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라고 보았으며, 류영아(2013)는 정책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의 의사표현부터 시민들이 조직화 되어 집합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활동으로 시민참여를 수준을 나누어 정의한다.

정안숙(2015)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기관 및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결정짓는 과정에 개인들이 참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결국 시민참여는 개인이 단순히 자신이 특정 조직 안에 속해있

다고 여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조직 안에서 자신을 조직의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구성원 혹은 시민(citizen)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자신을 구성원이라고 지각한 개인은 자신이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재량권을 발휘하여 때로는 조직을, 더 나아가서는 더 상위의 새로운 조직 활동에까지 참여하게 된다. 즉, 이 경우의 조직 활동은 단순한 여가 혹은 사교적 활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투표, 지역행사, 기부,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단체활동 등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나 해당 이해 당사자 끼리의 소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체활동 참여와는 개념적 차이가 있다.

봉사활동도 시민참여활동에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원의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 의미가 더 강하다. 최근 김춘남(2018)의 연구에서는 사회참여를 시민참여의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사회적 연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하였다. 개인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시민참여의 범위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참여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이 자발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개인이 그 조직을 이미 내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집단이라고 여긴 조직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시민참여행동을 보이는 것은 어떠한 특정 조직에 국한되지 않고 그 범위를 넓혀갈 때,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러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의 관계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 집단 및 공동체에 소속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권순복(2002)은 공동체(communitiy)를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 연대의식 속에서 공통적인 가치와 이익을 위하여 같이 참여하고 서로 분담하면서 살아가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Putnam(1995a)의 경우 집단을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바라보았다. 여기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회와 자본 모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 집단을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가진 개인들이 서로 조정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조직의 한 형태로 본 것이다. 즉 공동체 혹은 집단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모여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런 공동체 활동은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하나의 자본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는데 있어 핵심 요소인 공동체내 구성원간의 협력과 신뢰 증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인식수준 향상과 관련되며(유재원, 2003),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시민참여 의식을 확대시키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송경재, 2006; Almond & Verba, 1963; Putnam, 1993). Putnam(1993)은 공동체와 같은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 내의 신뢰가 시민적 덕성을 함양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공동체 참여 과정인 면대면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의 중요한 원천을 자발적인 공동체 혹은 집단이라고 보았다. 자발적 공동체의 예시 중 하나인 자원봉사활동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

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활동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시민참여의 성격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권영숙, 이영민, 2011; 김태준, 최상덕, 2009; 원미순, 박혜숙, 2010). 유재원(2003)은 시민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공동체 문화의 결여를 꼽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민참여를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공동체의 활성화 여부이며, 구성원들이 공동체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가에 따라 상호 협력과 신뢰 수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 참여를 통해 향상된 집단 내 협력과 신뢰는 집단 구성원의 시민참여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공동체에 활동적으로 참여할 때, 노인의 지역사회나 국가적 수준의 시민참여 수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소공동체활동 참여의 효과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후 노인들은 많은 시간적 여유와 추가적인 사회활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각자의 취향과 여건, 의지에 따라 다양한 소공동체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영역에는 취미생활, 학습, 봉사활동, 종교, 경제적 활동을 위한 모임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소공동체 참여 활동을 응집성과 이기주의 차원에서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응집성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기주의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함께 고려하여 소공동체활동이 활동적 노인들에게 주는 효과를 분석해보

고자 한다.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

응집성이란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 즉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노력으로 개인이 조직에 관여하고 조직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성실성의 정도를 의미한다(Carron, 1980). 공동체 응집성은 집단응집성으로 부르기도 하며, Swanda(1978)는 집단응집성을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유대감과 집단에 대한 애착 및 집단 존속의 총체적인 힘이라고 정의했다.

응집력은 집단 구성원들의 연대감, 조화, 헌신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Peter, 1989), 응집력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결속력은 집단 내 구성원이 단단하게 결합된 것으로(Weick, 1976), 집단 내에서 구성원 상호간에 강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Granovetter, 1973).

집단 응집력은 집단에 대한 애착 강화와 집단 구성원들의 참여도 및 영향력 증대,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조선배, 김석영, 전승환, 2009). 또한 심리적 안정과 자기존중감, 신뢰감을 매개하여 구성원의 불안을 낮추어 주며(Carron, 1982). 집단 구성원의 집단 응집성에 대한 경험은 조직 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Mowday, Porter, & Steers, 1982)

일상적 활동 참여와 소공동체 응집성 간의 관계는 다양한 연구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우선, 구희곤, 임수원(2011)은 군 병사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참여와 집단응집성, 군생활 적응성, 조직효과성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 병사들의 스포츠 참여가 집단응집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상금

(2006)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이 가족 간 응집성과 균형 있는 적응성, 부모-자녀 간 원만한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스포츠나 여가활동이 공동체 내 구성원간의 응집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Mullen과 Copper(1994)는 집단과 팀 대상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집단 응집성의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집단응집성은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나 일체감을 통해 집단 전체에 대해 헌신하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집단 유지를 위한 단결된 총체적인 힘이라고 하였다(유희경, 박선숙, 박행목, 김효상, 2007; 이방식, 구정대, 2004). 따라서 소공동체에 대한 활동적인 참여는 소공동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며 그로 인해 공동체 응집성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소공동체 응집성과 시민참여 간의 관계도 다양한 연구로부터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윤종철(2001)의 연구에서 참여자의 응집성과 집단규모는 시민참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성원들 간의 조직력, 즉 응집성이 강할수록 이를 표출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는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반대로 응집성이 약할수록 참여활동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된다. 특히 집단적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 조직력 또는 응집력은 시민참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노조를 대상으로 한 집단정체성과 집단응집력이 파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박래효와 김경수, 이경근(2008)의 연구에서는 집단 응집성이 노조원들의 집단행동 참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참여가 사회통합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조옥연(2012)의 연구에서는 스포츠클럽 참여율이 상호 신뢰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상호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사회문제 해결 및 협동심을 강화하여 사회응집성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포츠클럽 참여는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 이러한 상호 신뢰도는 더 나아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행동을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앞선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상적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공동체 소구성원 간의 공동체내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만들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 시켜 응집력을 키워줄 수 있다. 그리고 집단 또는 소공동체 응집력은 다시 그 집단을 넘어서서 더 상위의 지역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한 시민참여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

집단 또는 소공동체라는 것은 구성원들간에 단순히 '우리'라는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그 속에 속한 이들끼리 서로를 아끼거나 상호 의존하는 형태를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정열, 허태균, 최상진, 2001). 그러나 집단이 항상 이상적이고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집단을 위해 외집단을 배척하거나, 내집단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행동은 지역 이기주의, 공동체 이기주의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주변인들을 내부 집단과 외부집단으로 구분하여 내부집단의 구성원끼리만 협동하거나, 협조하는 현상을

‘자기집단중심주의(parochialism)’라고 부른다(김정유, 2013). 자기집단중심주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집단 간 차별(intergroup discrimination)’을 들 수 있는데 이 또한 의미는 같은 맥락이며,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과 스스로를 동일시함으로써 특정 외집단을 바라볼 때 개인 대 개인이 아닌 집단 대 집단이라고 인식하고 외집단 자체를 배척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위광희, 1998).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기저에는 집단행동이 존재한다.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모두 개인 혹은 집단 전체에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 각자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가진 이유들이 공동체 내에 동일한 합의를 만들어낸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본인의 공동체를 변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형성된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권해수, 1994). 자신의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들은 외집단보다 내집단을 호의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며(이해경, 이수원, 1994), 극단적으로는 집단에 대한 공격을 본인에게 오는 위협으로 인지하는 경우까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인 님비(NIMBY)나 펌피(PIMFY)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집단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자신의 조직인 내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태도나 입장으로 발전하고, 공공의 해가 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지양해야 하는 자세이기도 하다(문인수, 2011). 실제로 아직까지도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공동체 이기주의로 인해 특정 정책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지역간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면서 갈등 조절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이영문, 박영신, 임만택, 2007).

앞서 소공동체 응집성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간의 관계에서 언급했듯이, 소공동체에 활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협력과 신뢰가 증진되고 서로에 대한 응집성을 키워, 이는 곧 소공동체 자체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공동체 형성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면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시민참여 의식이 확대되고, 지역사회나 국가의 발전을 위해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발휘하여 다양한 시민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송경재, 2006; 유재원, 2003; Putnam, 1993). 공동체에 대한 응집성은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공익추구의식이 없이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개인을 공동의 이익과 공동선을 지향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변화시켜 사회적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Newton, 1999).

그러나 이런 소공동체에 대한 응집성은 거꾸로 반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즉,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발현될 수도 있다. 이런 소공동체 이기주의가 발현하게 되어 내집단의 이익만 추구하고, 동시에 외집단을 배척하는 태도와 행동은 내외집단 간의 신뢰나 호혜주의 규범,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여 공동체를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하며, 그 결과 시민참여 활동을 저해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노인은 특정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우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인 소유물, 권리, 위신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강하기 때문에(Cowgill & Holmes, 1972), 이러한 욕구에 대한 충족을 방해하는 외집단에 대해 더욱 폐쇄적이고 공동

체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가능성 또한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동적 참여와 시민참여의 관계가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활동적 참여를 준거변인인 시민참여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와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림 1, 2는 노인의 활동적 참여와 시민참여 간의 관계에서 각각 소공동체 응집성과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경로모형으로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수립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노인의 일상적 활동 참여는 시민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소공동체 응집성은 노인의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상적 활동 참여는 소공동체 응집성을 매개하여 시민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소공동체 이기주의는 노인의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연구가설 3-1. 소공동체 이기주의가 높을수록 일상적 활동 참여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3-2. 소공동체 이기주의가 낮을수록 일상적 활동적 참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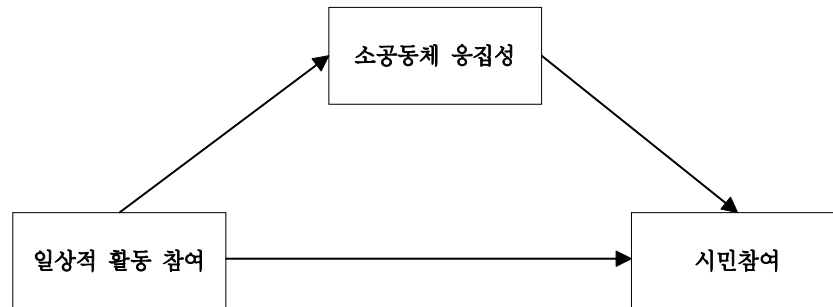


그림 1. 활동적 노년과 시민참여의 관계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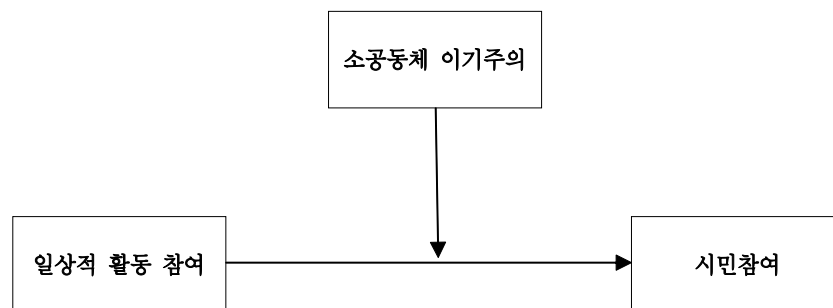


그림 2. 활동적 노년과 시민참여의 관계에서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모형

방 법

연구 참가자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소공동체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년기 인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소공동체에 회원으로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는 법적 연령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를 우선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퇴직 연령이 다양해짐에 따라 65세 이전의 경우라도 은퇴 후 소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증가하였고 현실적으로 노인들과 같이 소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56~64세에 해당되더라도 소공동체 활동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지속, 장기적으로 다양한 소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및 예비 노인(평균 65.9세, 표준편차 7.54)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였고, 총 700부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모든 자료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경험이 많은 리서치 전문 회사에 의뢰하여 수집되었다. 소공동체 유형으로는 직업 활동을 위한 학습과 능력 개발 혹은 실제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직업역량개발 소공동체, 교회나 성당, 절 등에서의 모임과 같은 종교 소공동체, 봉사나 사회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사회참여 소공동체,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취미생활 소공동체, 운동이나 레저를 함께 즐기는 신체건강 소공동체 등 총 6개

영역의 소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인원이었고, 소공동체 내 회장은 혹은 부회장과 같은 임원이 49.6%, 일반 회원이 50.4%이었다. 연령은 60~69세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70~79세가 28.6%, 56~59세가 21.4%, 80세 이상이 7.1%였다. 월 소득 수준은 300만원 이상이 41.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250~300만원이 18.9%, 200~250만원 미만인 16.9%, 150~200만원 미만인 7.9%, 100~150만원 미만인 7.7%, 100만원 미만인 7.7% 순으로 많았다.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51.9%, 대학교 졸업이 17.0%, 중학교 졸업이 15.4%, 전문대학교 졸업이 6.9%, 초등학교 졸업이 6.7%, 무학이 1.1%, 대학원 졸업이 1%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의 수준은 개인 수준이며,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모두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일상적 활동 참여

일상적 활동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유경, 장재운, 한태영, 이주일(2014)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활동적 노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참여, 건강, 안전 총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상적 활동 참여가 다른 결과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주된 연구 방향이나, 노년기의 건강이나 안전이 활동적 참여

와 노년기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라 활동적 노년 전체를 측정하고 건강과 안전의 영향은 통제변인으로 활용하였다(유경 등, 2014; 홍숙자, 2010; Carver & Baird, 1998; Fonda, Clipp & Maddox, 2002). 이에 따라 활동적 노년 척도 중 참여 30문항과 더불어 건강 10문항, 안전 8문항을 포함한 활동적 노년 척도 48문항 모두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의 하위 요인으로는 자기개발활동, 종교활동, 일상적 사회활동, 적극적인 사회활동, 가족지원활동, 봉사활동, 여가활동이 있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고 안전하며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내고 있음을 의미하며, 예시 문항으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에 참가한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경로당 혹은 마을 회관에 간다.' 등이 있다. 건강의 하위 요인으로는 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유지 활동이 있으며, 안전의 하위 요인으로는 환경안전, 재정안전이 있다. 활동적 참여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며 활동적 노인 요인 중 건강 척도와 안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79, .64이었다(활동적 노년 전체 척도 Cronbach's α = .90).

소공동체 응집성

소공동체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해 Porter와 Steers, Mowday, Boulian(1974)가 개발하고 이재훈, 최익봉(2004)이 사용한 조직 응집성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척도는 9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공동체에 관여하고 헌신하고자하는 응집 성향이 강한 것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우리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기대

이상의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등이 있다. 공동체 응집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다.

소공동체 이기주의

소공동체 이기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2008)에서 개발한 ‘대한상공회의소 K-Test’의 이기주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10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소속된 소공동체 이외의 집단이나 사람들에게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의 느낌이나 감정보다 우리 공동체 사람들의 느낌이나 감정이 중요하다.’, ‘나는 우리 공동체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이었다.

시민참여

시민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Klein(2007)이 개발한 시민참여 척도를 참고하여 시민참여의 4가지 차원인 투표, 공동체 회의 참석, 기부,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문항을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했다.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 참여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어떤 단체에 속하여서 일을 한다.’, ‘대선, 총선과 지방 선거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

등이 있다. 시민참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2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변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술통계 분석과 변인 간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노인의 활동적 참여 정도와 시민참여, 공동체 응집성, 공동체 이기주의와 같은 공동체 관련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본 연구는 매개효과 분석 시 모형 검증보다는 모형 개발에 초점을 두어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James와 Brett(1984)의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활동적 참여는 소공동체 응집성($r=.230, p<.01$), 시민참여($r=.257,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소공동체응집성과 시민참여 간 관계도 정적상관($r=.450, p<.01$)을 보였다. 본 연구가 활동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표 1.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1. 성별	-							
2. 연령	-.063	-						
3. 건강척도	-.005	-.220**	-					
4. 안전척도	.023	.096*	.463**	-				
5. 일상적 활동 참여	-.086*	-.180**	.364**	.267**	-			
6. 소공동체 응집성	.090*	-.045	.378**	.316**	.230**	-		
7. 소공동체 이기주의	.015	.101*	-.197**	-.015	.008	-.114**	-	
8. 시민참여	.038	-.022	.380**	.387**	.257**	.450**	-.116**	-
평균	0.50	65.92	3.64	3.33	3.82	3.65	2.88	3.33
표준편차	.50	7.54	.44	.50	.60	.47	.50	.57

주.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함. N=700, * $p < .05$, ** $p < .01$.

하였으므로 일상적 활동 참여수준이 높았으며, 건강척도와 안전척도에서도 중간이상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소공동체 응집성도 높은 편이었고, 시민참여 정도도 중간이상을 나타냈다.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 검증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 간의 관계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과 활동적 노년 척도 중 건강, 안전 변인을 통제한 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Baron과 Kenny의 방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둘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넷째,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독

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매개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감소해야 한다. 그 후,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모형에서의 간접효과와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고 매개효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면 완전 매개효과를, 그 회귀계수 값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유의미하다면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선 소개한 방식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결과, 1단계에서 활동적 참여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여 매개모형에서 총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beta = .118$, $p < .01$). 2단계에서 활동적 참여가 소공동체 응집성에 미치는 영향($\beta = .102$, $p < .01$)과 3단계에서 활동적 참여를 통제한 상태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beta = .313$, $p < .001$). 마지막으로 소

표 2.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 간의 관계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B	t	R ²	F
1단계: 독립→종속	일상활동참여→시민참여	.118	3.178**	.213	37.654***
2단계: 독립→매개	일상활동참여→소공동체응집성	.102	2.696**	.185	31.447***
3단계: 독립, 매개→종속	일상활동참여→시민참여	.086	2.430*	.294	47.983***
	소공동체 응집성→시민참여	.313	8.865***		

주. 성별, 연령, 건강, 안전 변인을 통제함. N=700, * $p < .05$, ** $p < .01$, *** $p < .001$.

공동체 응집성을 통제한 후 일상적 활동 참여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하였고($\beta = .086$, $p < .05$), 1단계에서보다 그 효과크기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매개모형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Z=2.60$). 이를 통해 활동적 참여와 시민 참여 간의 관계를 소공동체 응집성이 유의하

게 부분매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 검증

활동적 노년과 시민 참여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3단계에서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beta =$

표 3.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 간의 관계에서 소공동체이기주의의 조절효과

모형	변인	B(β)	SE	t	R ²	ΔR^2	F
1	(상수)	.998	.27	3.67***			
	성별	.04(.03)	.04	1.01			
	연령	.00(.01)	.00	.330	.202	.202	43.967***
	건강	.34(.26)	.05	6.49***			
	안전	.33(.26)	.05	6.72***			
2	(상수)	1.15	.27	4.23***			
	일상적 활동 참여	.12(.13)	.04	3.37**	.219	.017	7.511**
	소공동체 이기주의	-.09(-.08)	.04	-2.21*			
3	(상수)	1.13	.27	4.18***			
	일상적 활동 참여	.11(-.05)	.03	3.21**			
	소공동체 이기주의	-.06(-.05)	.04	-1.39	.234	.015	13.265***
	일상적 활동 참여× 소공동체 이기주의	-.24(-.12)	.06	-3.64***			

주. 성별, 연령, 건강, 안전 변인을 통제함. N=700, * $p < .05$, ** $p < .01$, *** $p < .001$

$-.12, p < .001$), R^2 변화량이 유의미하였다 [$F = 13.27, p < .001, \Delta R^2 = .015$]. 이는 소공동체 이기주의가 활동적 노년과 시민참여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조건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1 표준편차, 평균, $+1$ 표준편차의 값으로 고정하여 노인의 활동적 참여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기울기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소공동체 이기주의를 -1 표준편차로 고정했을 때, 활동적 참여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heta_{(X \rightarrow Y)/M=2.383} = .228, t = 4.956, p < .001$). 또한 소공동체 이기주의를 평균으로 고정했을 때에도 활동적 참여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heta_{(X \rightarrow Y)/M=2.883} = .111, t = 3.205, p < .01$). 그러나 소공동체 이기주의가 $+1$ 표준편차일 때에는 활동적 참여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theta_{(X \rightarrow Y)/M=3.382} = -.007, t = -0.140, p = 0.889$).

이는 소공동체 이기주의가 평균 수준 이하인 노인들은 활동적 참여가 시민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소공동체 이기주의가 비교적 높은 노인들에게서는 활동적 참여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공동체 이기주의 성향이 낮은 노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활발히 할수록, 시민참여에도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반대로 소공동체 이기주의 성향이 높은 노인들의 시민참여 수준은 소공동체에 대한 참여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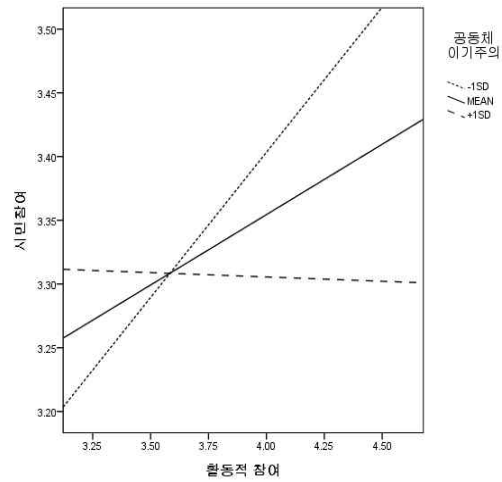


그림 3.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의 관계에서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 그래프

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적 참여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건부 효과에 대한 그래프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의 관계,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 효과와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노년기의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 소공동체 응집성, 소공동체 이기주의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년기의 일상적 활동 참여는 소공동체 응집성, 시민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소공동체 응집성과 시민참여 간 관계 또한 정적상관을 보여, 노인이 일상적 활동 참여를 많이 할수록 소공동체 응집성의 성향과 시민참여가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졌던 노인의 적극적인 일상 활동 참여와 집단에 대한 응집 수준, 시민참여가 정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권영숙, 이영민, 2011; 김태준, 최상덕, 2009; 원미순, 박혜숙, 2010; 박래효 등, 2008; 윤종설, 2001; 조옥연, 2012; Putnam, 1993).

또한 노년기의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 간 관계에서 소공동체 활동의 한 요소인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노인의 활동적 참여와 시민참여 간의 관계를 소공동체 응집성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에 활발히 일상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소공동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높은 소공동체 응집성은 더 나아가 적극적인 시민참여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공동체나 집단을 강조했던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권영숙, 이영민, 2011; 김태준, 최상덕, 2009; 원미숙, 박혜숙, 2010; 송경재, 2006; 유재원, 2003; Almond & Verba, 1963; Putnam, 1993).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체에 대한 결속력, 응집성 수준을 증가시키고(구희곤, 임수원, 2011; 유희경 등 2007; 이방식, 구정대, 2004; 한상금, 2006; Mullen & Copper, 1994), 이렇게 증가된 응집성이나 조직력이 시민참여 활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만들며 시민참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박래효 등, 2008; 윤종설, 2011; 조옥연, 2012). 또한 개인차원에서 다양한 일상활동에

참여하면서 활동적 노년을 보내는 것은 소공동체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어 주고, 이런 과정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이 형성되면 이는 다시 더 큰 단위의 공동체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들의 시민참여를 높이려면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성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년기의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 간 관계에서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고,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소공동체 이기주의 성향이 높은 노인의 경우에는 일상적 활동 참여를 많이 하더라도 시민참여 수준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비해, 소공동체 이기주의 성향이 낮거나 보통인 노인의 경우 일상적 활동 참여를 많이 할수록 시민참여 수준도 매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던 사회적 자본으로서 소공동체에 대한 활동적 참여를 통해 구성원들의 사회 참여 의식이 증가하고, 이것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발휘하도록 하여, 시민참여의 수준도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이 내 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여 내집단 편애를 하고 외집단을 배척하는 소공동체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일상적 활동 참여가 시민참여로 이어지는 관계가 약화 된다. 이는 개인의 이기주의적 성향이 소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 시민참여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에서의 주장과 일치한다(Newton, 1999; Putnam, 1995b). 즉, 소공동체 활동에 적극참여하더라도 이런 활동이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나 소공동체 이기주의로

호르게 되면 활동적 노인의 활동적인 일상활동 참여가 시민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요구되는 과정에서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이 일상적 생활에서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고, 소공동체에도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소공동체 응집성이나 소공동체 이기주의와 같이 개인의 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성향과 상호작용하여 시민참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들이 일상적 활동 차원에서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노년기의 공동체 활동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노인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소공동체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소공동체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면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결과는 노인들이 공동체 활동에서 형성한 응집성 및 이기주의 성향을 고려하여 노인 정책을 개발하거나 진행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가 가진 의의로는, 첫째로 실용적 측면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은퇴를 한 이후에도 활동적으로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국내 사회과학분야 연구의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노인 인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한국 사회가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향후

인구 예상 지표를 고려했을 때, 노인 대상 연구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7). 이와 더불어 현대 사회의 고령 인구는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고 영유하고자 하며, 많은 소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는 이미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노인의 활동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을 수동적인 객체로 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 바라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노인 연구에서는 노인을 경제적 능력이 없어 다른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에는 노인 의료와 고용 정책의 발전에 의해 노년기의 신체 능력 향상과 함께 근로 기회 또한 개선 및 확대되었다. 따라서 노인을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주동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능동적으로 자기주장을 펼치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등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년기 관점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변모해가는 노년기의 역할을 이전과 다른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를 갖는다.

셋째, 집단 또는 소공동체가 노년기 인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또는 부정적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의 노인 관련 연구들은 노년기에 일반적으로 경

험할 수 있는 노인 우울이나 불안, 삶의 만족도, 자살 등 개인의 상태에 관심의 수준이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인구 개개인이 모여 소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소공동체 집단 내에 속한 개인의 심리적 및 행동적 역동에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고령화에 의해 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활동적 노년기를 보내는 노년기 인구를 대상으로 소공동체 활동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사회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공동체 활동이 주는 명암을 같이 분석하고자 하여, 내집단에 대한 응집성이 주는 긍정적 효과와 내집단에 대한 이기주의가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같이 조명하고자 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노인이 적극적으로 일상적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가 노인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들의 일상적 활동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점이며, 더 나아가 소공동체 단위의 ‘활동적 참여’ 장려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앞으로 노인 복지 사업의 방향성 또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런 정책 실현과정에서 소공동체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이기적인 관점으로 흐르게 하지 않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계점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표본의 한계점을 가졌다. 본 연구는 고령화라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노인 및 예비노인(56~64

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포함된 표본과 다른 연령층 간 차이점을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지 못해 연구의 결과가 노년층에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확인하지 못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연령층과는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면 노년층의 특성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반적 특성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연구가 또한 필요하다. 이에 더해, 다른 국가 혹은 사회 간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고령화 심각성까지 알아볼 수 있어,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모형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이 일반적인 노인이 아니라 특정 소공동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이러한 표본의 고유한 특성은 아닌지 고려해보아야 한다. 노년층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는 주로 금전적 및 정서적 부분에서 나타난다. 특히 금전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어 특정 수입 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의 경우, 다양한 소공동체에 활동적 참여를 하고 있는 노인들만 표집한 본 연구의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미 소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개인적 및 소공동체 차원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시민참여 간 관계를 분석한 것이므로 관련성이 과소 추정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적 공헌도 및 공익을 증가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러한 과정에 특정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다양한 노인 표본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소공동체를 연구집단으로 확보하고자 한 관계로 하나의 소공동체나 소공동체 단위의 분석수준을 갖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분석수준을 개인단위가 아닌 소공동체와 같은 집단 단위로 올려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 및 소공동체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소공동체 활동은 개인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집단수준차원에서도 연구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런 차원의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희곤, 임수원 (2011). 군 병사의 스포츠참여와 집단응집성, 군생활적응성, 조직효과는 간의 인과모형. 한국체육학회지, 50(5), 295-307.
- 권순복 (2002).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279-309.
- 권영숙, 이영민 (2011).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특성 유형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계 분석. 지방행정연구, 25(1), 137-156.
- 권해수 (1994). 주민의 집단행동과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안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5(1), 305-319.
- 김민희, 이주일 (2017). 노년기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5), 100-113.
- 김보현, 안영선 (2008).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15(1), 141-160.
- 김석일 (2012). 신체활동 참여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 경험과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1(1), 333-344.
- 김은아 (2015). 소외계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14, 89-112.
- 김정유 (2013). 이기주의, 이타주의, 자기집단 중심주의. 사회경제평론, 42, 1-18.
- 김주현, 한경혜 (2001).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한국노년학, 21(2), 209-224.
- 김춘남 (2018). [정책제안] 실질적인 지원으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해야. 월간 공공정책, 150, 59-61.
- 김태준, 최상덕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한국 교육 개발원.
- 대한상공회의소 (2011). 종합직무적성검사 K-Test 활용, Retrieved from http://license.korcham.net/k_test/kttest/kttest01021.jsp?m_cd=2&ss_cd=1&d_cd=2
- 류영아 (2013). 시민참여 활성화 영향요인 연구. 지방정부연구, 17(2), 317-338.
- 문인수 (2011). 지역이기주의와 K-2 공군기지 이전 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9(2), 103-127.
- 박래효, 김경수, 이경근 (2008). 노조의 집단파 돌림 및 노조사회화가 파업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과정에 관한 연구.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2, 151-178.
- 박정열, 허태균, 최상진 (2001). 사회적 범주과정의 심리적 세분화: 내집단 속의 우리와 우리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1), 25-44.
- 박현준, 홍진혁, 최민재, 권영대, 김진석, 노진원(2014). 중노년기 은퇴자의 은퇴 전후의

- 사회적 관계망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2), 753-763.
- 보건복지부 (2019). 2019 자살예방백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9734
- 서태열, 임은진 (2013).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사회와 인구교육의 방향과 전략. 사회과교육, 52(4), 23-35.
- 송경재 (2006). 자발적인 시민참여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사례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 221-255.
- 원미순, 박혜숙 (2010).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225-245.
- 위광희 (1998). 내집단 개별화가 집단간 차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41-159.
- 유 경, 장재윤, 한태영, 이주일 (2014). 활동적 노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노년학, 34, 613-630.
- 유재원 (2003).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2), 105-125.
- 유희경, 박선숙, 박행목, 김효상 (2007). 패밀리 레스토랑 종업원의 성격요인, 조직응집성, 조직성과의 관계 분석. 관광학연구, 31(5), 9-28.
- 윤종설 (2001). 적극적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공서비스 평가. 한독사회과학논총, 11(1), 67-92.
- 이기영 (2017). 은퇴여부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참여활동의 매개효과. 생명연구, 43(1), 309-366.
- 이기홍 (2005). 한국 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한국노년학, 25(3), 1-21.
- 이방식, 구정대 (2004). 호텔기업에 있어서 리더십이 집단응집력과 직무성파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13(1), 79-97.
- 이영문, 박영신, 임만택 (2007). 지역이기주의와 갈등조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7(1), 89-92.
- 이재훈, 최익봉 (2004). 조직공정성, 신뢰, 조직유효성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인사조직연구, 12, 93-132.
- 이해경, 이수원 (1994). 사회적 범주화, 가치 선호 및 내집단 편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8(2), 108-123.
- 잡코리아 (2017). “직장인 체감 퇴직 연령 ‘51.7세’”(http://www.jobkorea.co.kr/GoodJob/News/View?News_No=11979&schCtgr=0&schGrpCtgr=100&schTxt=%ED%87%B4%EC%A7%81&Page=1)
- 정안숙 (2015). 현대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역할: 공동체심리학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3), 667-683.
- 정유리, 이신숙 (2013). 노년기 여가활동 활성화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5(2), 49-63.
- 정희재, 원영신 (2010). 은퇴한 남성노인의 여가스포츠활동 참가동기가 재사회화 및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3), 209-220.
- 조선배, 김석영, 정승환 (2009). 직무특성이 집단응집력과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호텔의 객실 및 식당 종사자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8(4), 201-215.
- 조옥연 (2012). 스포츠클럽 참여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3), 363-372.

- 최희경 (2010). “신노년” 정책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한국사회정책*, 17(3), 41-65.
- 통계청 (2017).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2018). 2018 고령자 통계.
- 한상금 (2006). 가족여가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홍숙자 (2010). 노년학 개론. 서울: 하우.
- 황성식, 김세현 (2019). 노년층의 은퇴와 삶의 만족도: 복지수준과 문화적 성향에 따른 국가 간 비교. *한국인구학*, 42(3), 27-54.
- Adler, R. P. & Goggin, J. (2005). What do we mean by “civic engagement”?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3(3), 236-253.
- Verba, S. & Almond, G.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Carron, A. V. (1980). Social psychology of sport. *Ithaca, NY: Movement Publications*.
- Carron, A. V. (1982). Cohesiveness in Sport Groups: Interpretations and Considerations. *Journal of Sports Psychology*, 4(2), 123-138.
- Carver, C. S. & Baird, E. (1998). The American dream revisited: Is it what you want or why you want it that matters? *Psychological Science*, 9(4), 289-292.
- Cowgill, D. O. & Holmes, L. D. (1972). Aging and modernization. *Appleton-Century-Crofts and Fleschner Publishing Company*.
- Fernández-Ballesteros, R. (2008). Active aging: The contribution of psychology. *Hogrefe Publishing*.
- Fernández-Ballesteros, R., Robine, J. M., Walker, A., & Kalache, A. (2013). Active aging: a global goal. *Current Gerontology and Geriatrics Research*.
- Fonda, S. J., Clipp, E. C., & Maddox, G. L. (2002). Patterns in functioning among residents of an affordable assisted living housing facility. *The Gerontologist*, 42(2), 178-187.
-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13), 60-1380.
- Grootaert, C. (2001). Does social capital help the poor?-a synthesis of findings from the local level institutions studies in Bolivia, Burkina Faso, and Indonesia. *The World Bank*.
- James, L. R. & Brett, J. M. (1984). Mediators, moderators, and tests for medi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9(2), 307.
- Klein, J. R. (2007). A national study of civic engagement and moral development of undergraduate honors students. *The University of Iowa*.
- Mowday, R. T., Porter, L. W., & Steers, R. M. (2013). Employee-organization linkages: The psychology of commitment, absenteeism, and turnover. *Academic press*.
- Mullen, B. & Copper, C. (1994). The relation between group cohesiveness and performance: An integr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5(2), 210.
- Newton, K. (199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lished democracies” in Norris, P.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 Democratic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69-88.
- Peter E. Mudrack. (1989). Defining group cohesiveness: A legacy of confusion?. *Small Group Behavior*, 20(1), 37-49.
- Porter, L. W., Steers, R. M., Mowday, R. T., & Boulian, P. V. (1974).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among psychiatric technicia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9(5), 603.
- Putnam, R. (1995a).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Putnam, R. (1995b).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8(4), 664-683.
-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The American Prospect*, 4(13), 35-42.
- Swanda, J. R. (1978). Organizational behavior: systems and applications. *Sherman Oaks, CA: Alfred Pub. Co.*
- Walker, A. (2008). Commentary: The emergence and application of active aging in Europe.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21(1), 75-93.
- Weick, K. E. (1976). Educational organizations as loosely coupled syste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19.
- 논문 투고일 : 2019. 11. 05
1 차 심사일 : 2019. 11. 12
게재 확정일 : 2020. 04. 02

**The Effect of Active elderly'
Participation in Everyday activities on Citizen Particip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mall Community Cohe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mall Community Selfishness**

Juil Rie

Taewoong Kim

Pilhyun Kim

Hansong Lee

Hallym University, Hallym Institute of Applied Psychology

Since the early 2000s, Korea has continued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due to low fertility and increased life expectancy. As a result, Korea has now entered the aging society. Because of this demographic change, proportion of active elderly have increased, and many academics, such as sociology, economics, and psychology, have conducted various studies on the active elderly. This study focused on active elderly based on the activity theory of old age and the positive effect of small community participation activity on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active elderly' participation in everyday activities, small community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affect citizen participation actively in society as a citizen, and in the process, mediates the effect of small community cohe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mall community selfishness. This study performed a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700 elderly people who are participated actively in various small communities. As a result,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mall community cohesion was show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everyday activities and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mall community selfishness was also show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overnment and interested parties need to develop and implement policies for the small community participation of elderly citizens in consideration of their small community activities, small community cohesion and small community egoism.

Key words : Active aging, Participation in everyday activity, Citizen participation, Small community cohesion, Small community selfishness, Small community